

김현수 홈런 LG '어린이날 더비' 승리

개인 통산 200홈런 달성... 두산에 7-4 역전승 거둬 삼성, 파죽의 4연승 선두 질주... 오승환 8세이브

김현수(33·LG 트윈스)가 KBO리그 개인 통산 200홈런을 채웠다. 김현수의 홈런포로 추격을 시작한 LG는 어린이날 펼쳐진 두산 베이스와의 잠실 라이벌전에서 역전승했다. 김현수는 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1 KBO 신한은행 SOL KBO리그 두산 베이스와의 방문 경기에 3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해, 세 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쳤다. 1-4로 뒤진 5회초 무사 1루, 김현수는 두산 선발 워커 로켓의 시속 150km 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오른쪽 담을 넘어가는 투런 아치를 그렸다.

집으로 힘을 냈다. "중고참" 오지환은 결승타 포함 5타수 3안타 2타점을 올렸다. LG는 올 시즌 팀의 두 번째 선발전원 안타를 달성하며 두산에 7-4로 꺾었다.

선두로 치고 나온 삼성 라이온즈의 기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삼성은 대전 한화생명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방문경

기에서 0-1로 뒤진 8회초 호세 피렐라와 강민호의 연속 2루타로 전세를 뒤집어 4-1로 승리했다. 이로써 파죽의 4연승을 달린 삼성은 이날 패한 2위 kt wiz와의 승차를 1.5게임 차로 벌리고 선두 질주를 계속했다. 시즌 8세이브를 거둔 오승환은 구원 부문 단독 선두로 나섰다. 고척에서는 3개의 홈런 등 5타수 4안타를 치고 5타점에 3득점을 수확한 김용민(25)의 활약을 앞세워 키움 히어로즈가 kt wiz를 14-0으로 제압했다.

'인생 경기'를 펼친 키움의 김용민은 "잊을 수 없는 경기"라며 담담하게 소감을 전했다. KIA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방문경기에서 선발 다니엘 멘덴의 호투 속에 타선의 응집력을 보이며 8-5로 승리해 반동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롯데는 에이스 댄 스트레일리 투입하고도 속절없이 5연패의 늪에 빠졌다. 창원에서는 양 팀 합쳐 7개의 홈런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SSG가 NC에 13-12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맨체스터 시티의 리야드 마흐레즈가 4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과의 2020-2021시즌 UCL 준결승 2차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맨시티, PSG 잡고 사상 첫 UCL 결승행

마흐레즈 멀티골 2-0 완승 13년 만에 유럽 정상 눈앞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구단 사상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맨시티는 5일(한국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과의 2020-2021시즌 UCL 준결승 2차전에서 리야드 마흐레즈의 멀티골을 앞세워 2-0으로 이겼다. 원정에서 열린 1차전에서도 2-1로 이긴 맨시티는 합계 4-1로 앞서 유럽 정상에 도전할 기회를 얻었다. 2008년 중동 거부 셰이크 만수르에게 인수되며 '빅클럽'으로 떠오른 맨시티가 UCL 결승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맨시티는 2016년 1월 페프 과르디

올라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 UCL 토너먼트에서 졸권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특히 지난 시즌까지 3시즌 연속으로 8강에서 탈미를 잡았다. 맨시티는 이번 준결승 2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며 UCL 7연승을 달렸다. 이는 잉글랜드 팀의 UCL 최다 연승 기록이다. 이미 리그컵(카라바오컵)에서 우승했으며 선두를 달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우승 가능성이 매우 큰 맨시티는 이번 UCL 결승 진출로 트레블(3관왕) 달성을 사정권에 뒀다. 맨시티는 첼시(잉글랜드)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의 준결승전 승리 팀과 오는 30일 오전 4시 터키 이스탄불에서 우승권 '빅이'를 두고 단판 승부를 펼친다. 지난 시즌 대회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저 준우승에 머물렀던 '프랑스 최강' PSG는 첫 우승 도전을 다음 기회로 또 미뤘다. 연합뉴스



응원하는 어린이가 어린이날인 5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두산 베이스의 경기에서 LG 트윈스 팬인 한 어린이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인삼공사, KCC 꺾고 2연승... 정상 '성큼'

2020-2021 프로농구 챔피언 변준형·이재도·오세근 활약

안양 KGC인삼공사가 정규리그 1위 팀 전주 KCC와의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2연승을 거두며 통산 세 번째 우승을 향해 진격했다. 인삼공사는 5일 전주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7전 4승제) 2차전 원정 경기에서 KCC를 77-74로 따돌렸다. 인삼공사는 3일 1차전에서 98-79

로 완승한 데 이어 이날은 점점을 승리로 마무리해 2연승을 쌓았다. 부산 kt와 6강 플레이오프,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4강 플레이오프를 각각 3연승으로 통과한 인삼공사는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2연승을 수확, 2013~2014년 현대모비스가 작성한 역대 포스트시즌 최다 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반면 정규리그 1위로 4강에 직행, 인천 전자랜드를 3승 2패로 힘겹게 꺾고 올라온 KCC는 안방에서 연패를 당하며 위기에 몰렸다. 역대 챔피언 결정전에서 1~2차전

을 모두 잡은 팀의 우승 확률은 81.8%(9/11)다. 두 팀은 안양으로 장소 옮겨 7일 3차전, 9일 4차전을 이어간다. 저득점 양상이 이어지던 1쿼터 중반 이후 KCC가 먼저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2쿼터 시작하자마자 이정현과 유현준의 연속 3점 슈트가 폭발하며 25-12, KCC는 두 자릿수 격차를 만들었다. KCC는 특유의 빠른 트랜지션을 앞세워 주도권을 놓지 않은 채 전반을 42-36으로 마쳤다. 후반 들어 인삼공사의 반격은 더욱 강력해졌다. 연합뉴스

3쿼터 중반 강력한 수비로 상대 실수를 유발해 만든 기회를 잇달아 득점으로 이어가 2분을 남기고 54-53으로 전세를 뒤집었고, 쿼터가 끝날 땐 61-57로 앞섰다. 4쿼터 초반 65-57까지 벌였으나 이정현의 분투 속에 추격하는 KCC와 접전을 이어가던 인삼공사는 변준형이 4분 40초 전 72-67, 2분 44초 전 75-71을 만드는 3점포를 폭발하며 기 싸움에서 우위를 이뤘다. 75-74이던 23.9초를 남기고는 변준형의 멋진 패스와 오세근의 골 밑 마무리로 2점을 더해 승기를 잡았다. 변준형이 3점 5방을 포함해 팀 내 최다 23점을 올렸고, 이재도가 21점, 오세근이 20점 6리바운드로 승리를 합작했다. 연합뉴스

PGA 대항마?... 프리미어골프리그 부상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정상급 선수의 외면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프리미어골프리그(PGL)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윤곽을 드러냈던 PGL은 미국프로골프(PGA)투어보다 더 많은 상금을 내걸고, 컷 없는 3라운드 대회 등으로 최정상급 골퍼 선수들에게 참가를 권해 파문이 일었다. PGL에 돈을 대는 투자자들이 최근 세계랭킹 1위 더스틴 존슨, 브룩스 켈카(이상 미국),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등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ESPN이 5일(한국시간) 밝혔다.

PGL 측은 2022년에 PGL이 출범할 예정이라며 이들 선수에게 참가를 권유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선수 에이전트는 ESPN에 "PGL은 아직 살아 있다. 많은 에이전트와 선수들에게 제안을 넣었다"면서도 "지금 은 그저 들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PGL은 2022년부터 1년에 18개 대회를 치른다. 40개가 넘는 대회를 여는 PGA투어와 비교가 되지 않지만 정상급 선수 48명만 모아서 대회를 열고 얼마아만한 상금 규모에 컷이 없어 수입이 보장된다는 점이 PGA투어와 다르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국경 8:25 아침대중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중계방송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1:55 송터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코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코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코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속노라 골걸(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대박부동산(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55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아모르파티 9:10 좋은 아침 10:00 중계방송 15:15 클라스 e 16:15 한글문화사 아이아 16:30 당동명 유지원 18:00 생방송 밤과 후문 19:35 자이언트 펭TV	7:30 뽀뽀뽀 뽀로로 8:00 뽀뽀뽀 유지원 9:40 유지원 유치원 10:30 한국기행 13:00 일간 해방 생방송 오후 1시 14:10 명의 15:15 클라스 e 16:15 한글문화사 아이아 16:30 당동명 유지원 18:00 생방송 밤과 후문 19:35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두대유지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2 14:30 중계방송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6:00 시사간건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일간극장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0 통통죽(재) 15:30 TV 유지원 16:00 누가누가 잘하나 17:00 미아엔조니 17:15 몬스터 탐 17: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반짝이는 프리체널2 12:50 뽀뽀뽀 친구구 스페셜 13:20 푸라기 식사교실 13:50 2시 뉴스 외전 15:3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16:00 기분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다류에서이 그시람 스페셜	12:10 SBS 12 뉴스 12:35 JIBS 뉴스 13:00 일간TV 시청자 세상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오 뉴스 17:35 JIBS 뉴스 17:50 행복살개 앞배찌(재)	7:00 김작가의 아침뉴스 9:00 그대곁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낮중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00 CBS 생방송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대의 뉴스랩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가스펠 어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한국인의 밥상 20:30 속노라 골걸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다류 인사이드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미스 몬테크리스토 20:30 UHD 원경스페셜 21:30 대박부동산 22:10 대박부동산 22:40 우리싱싱 1부 23:15 우리싱싱 2부 23:50 스튜디오 K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05 생방송 연극복권 720+ 19:10 밥이 되어라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외 주안님 21:55 외 주안님 22:30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23:3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23:50 안싸우면 대항이야 스페셜	18:50 클리! NOW 제주 스페셜 19:20 맛있는 제주 만들기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맛있는 광장 1부 21:30 맛있는 광장 2부 22:00 맛있는 광장 3부 22: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 23:15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 23:55 절실! 무비월드 스페셜	7:00 KCTV 뉴스 8:00 제우ING 9:30 떠나고, 돌아서 12:30 디콜로트 토크 13:10 제주도농업기술원영농교육 14:20 UHD 제주산책 15:20 로 먹고 산다 15:50 넘어, 연결하다 18:00 방송콘텐츠경연대회수상작 18:30 취미로 먹고 산다 20:00 떠나고, 돌아서 21:0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4)740-7331 / MBC ☎ (04)740-2432 / JIBS ☎ (04)740-7800 / KCTV ☎ (04)741-7723 / 제주CBS ☎ (04) 748-7400

오늘의 운세 6일 김종상 지단(해)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형제간 금전문제 또는 재산으로 인한 다툼, 불화가 생길 수 있다. 48년 할 일이 배가 돼 즐거우나 무리함이 우려되며 여유있게 처리. 60년 집먼서 변화 또는 현 직업에 변화가 온다. 72년 직장인은 호운이 오고 인정받는다. 85년 상사와의 휴식 일주. 84년 자기의 시를 명쾌하고 정확히 피력하는 것도 옹기라 한다.

37년 의욕이 증가하고 활력이 넘치니 마음껏 활동해도 좋다. 49년 바쁠수록 신중하게 활동하라. 서두르면 문제 발생. 61년 전문직 또는 장인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갖는다. 73년 취직과 관련된 것은 길. 이성문제는 차질이 생긴다. 85년 상사와의 유대관계를 잘 지속하라. 이성교제 소식에 힘이 찾아 온다.

38년 완고함보다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인다. 50년 어머니 사위의 갑작스런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이성관계 불륜 구설수 주의. 62년 자녀진로도 고민. 부모는 여러 가지 준비로 분주하다. 74년 자산을 알고 분별력 있는 행동 시 뒷사람이 칭찬을 한다. 86년 하는 일에 호전되니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39년 집안 일로 외출 또는 여행을 한다. 물건 구입 시 분실 조심할 것. 51년 인간관계에서 배신·배반 또는 분상할 일 발생하게 된다. 63년 중책이나 책임을 다할 일이 주어지고 늦게까지 바쁘다. 75년 가까운 사일수록 말을 자제하며 사생활을 논하지 마라. 87년 취직 또는 이성교제가 진행된다.

40년 감성을 상대는 참견이라 보니 시비조심. 운전 조심. 52년 문서를 계약문이 김하고 변동운도 원만. 집안보다 외부 활동이 더 중요하다. 64년 재물 손재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 보충 설정 금지. 76년 이사 등의 문제로 분수. 자격증을 활용한 일주에 길. 88년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니 뒷사람의 칭찬이 있다.

41년 기회는 만드는 법. 밤스가 오면 포착하라.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라. 53년 일이 생기고 몸이 사방으로 쏠린다. 65년 모친에게는 안부전화. 운전조심. 77년 상대방의 말에 자극을 받거나 논쟁은 나를 옹호하게 만든다. 89년 목적이 있는 것이 있으면 노력하여 실력을 인정 받으려 할.

42년 너무 신중하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단은 과감한 게 좋다. 54년 내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 갈곳이 분주해진다. 66년 애인이나 이성이 다가오거나 교제가 이뤄질 수 있다. 78년 의견이 맞지 않거나 뒷사람과 논쟁한다. 90년 자신감과 명예가 있어도 마음은 엔지 답답하다.

43년 맞지 않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 손실만 초래하니 호기심을 발동하지 마라. 55년 길 곳이 많고 길목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참. 67년 걱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를 헤드리본 좋아한다. 79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방법과 대책이 생긴다. 91년 목표를 정해 충실하면 자신감과 더불어 이익 증가.

44년 혼자서는 해결이 안되니 가까이 있는 사람과 상의하라. 56년 발표금 또는 생각이 없는 재물지출이 생기니 차량 운전 시 조심. 68년 의견이나 타지역으로 여행 또는 출장이 생긴다. 80년 동료 또는 뒷사람과 논쟁이 있으니 대응하지 않게 좋다. 92년 일이 필요 시 주변에 요청하면 가능하다.

45년 답답하고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 57년 문제가 생기면 파하지 말고 앞장서서 해결하라.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69년 물이 흐르듯 아랫사람의 말도 나에게서 중요하니 경청하는 자세도 좋다. 81년 서두르지 말고 한번 더 생각이 필요하며 신중함이 요구. 93년 피곤할 수 있으니 거절은 단호히 하라.

46년 귀인 도움으로 나의 능력이 배가 되고 바쁘다. 움직이면 복이 온다. 58년 직점투자로 사업장을 갖고자 한다. 주변에 자문을 구하라. 70년 한 가지 뜻하는 일을 강력히 추진하라. 결과가 있다. 82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명예 또는 이익 발생. 94년 신뢰한 만큼 나도 신뢰를 받을 수 있으니 칭찬에 인색하지 마라.

47년 시비 구설이 오니 앞장서는 일은 신중하게. 59년 열정이나 의욕이 강한 날. 이익이 증가된다. 71년 과정을 지나 결과물을 취득하는 때. 투자출생. 이성교제 길. 83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실천하면 그 결과가 좋다. 95년 나의 따스한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도 상대를 매료시킨다.